

Me too vs. Yo también*

심 상 완
단국대학교

심상완(2013), Me too vs. Yo también.

초 록 문장 내에서 동사가 생략 혹은 탈락될 때 인칭대명사가 취하게 되는 형태와 관련하여 영어와 스페인어는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Me too와 Yo también이다. 대다수의 스페인어 전공자들은 종종 Me too에 상응하는 형태로 Me también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궁금해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인칭대명사의 형태와 관련하여 두 언어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교육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필자는 이러한 대조가 목적격대명사의 형태적 자립성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한다. 즉, 영어의 목적격대명사는 자립형태소인 반면에 스페인어의 목적격대명사는 의존형태소이기 때문에 Me too에 상응하는 스페인어의 표현으로 Me también은 될 수 없고 Yo también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스페인어 문장 내에서 목적격대명사만 홀로 남겨질 경우에는 'a + 사격대명사' 형태(예: a mí)가 사용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현상은 일종의 최후수단, 즉 '대체를 통한 교정(repair by substitution)'의 일환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a + 사격대명사' 형태는 목적격대명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목적격대명사에게 결여된 형태적 자립성을 갖추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a + 사격대명사' 형태가 형태적 자립성이 없는 목적격대명사를 반드시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핵심어 목적격대명사, 무표격 형태, 형태적 자립성, 대체를 통한 보수, 코드전환

* 논평자 세 분의 유익한 논평 덕분에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음을 미리 밝힌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I. 연구동기 및 연구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yo también*, *a mí también* 처럼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고 대명사만을 이용하여 말을 할 때 (bare pronoun answers/bare DP constructions) 대명사가 취하는 형태와 관련하여 영어와 스페인어 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두 언어 간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보기로 하자. 아래에서 보듯이 비격식체(informal speech) 영어의 긍정문/부정문에서 ‘나도’ 또는 ‘나도 그래’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주격대명사 I 대신 목적격대명사 me 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에 스페인어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주격대명사 yo가 쓰인다.

- (1) a. A: I'm a nighttime eater.
 B: Me too.
 b. A: I can't wait anymore.
 B: Me either. (=I can't wait anymore either)
 B': Me neither. (=Neither can I)
- (2) a. A: Soy comedor nocturno.
 B: Yo también.
 b. A: No puedo esperar más.
 B: Yo tampoco.

한편, 아래 (3)과 같은 영어 예문에 상응하는 스페인어 표현에서는 대명사가 yo도 me도 아닌 a mí 형태를 취한다.

- (3) A: Mary invited us to the party.
 B: Me too.
- (4) A: María me ha invitado a la fiesta.
 B: A mí también / *Yo también / *Me también.

Me too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왜 하필 나야? / 왜 하필 겁니까?’의 의미를 지닌 Why me?에 상응하는 스페인어 표현도 상황에 따라 ¿Por qué yo?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Por qué a mí?가 되기도 한다.

(5) A: Hey man. You should marry the ugly girl!

B: Oh shit! Why me?

(6) A: Tienes que casarte con esa chica fea.

B: ¡Mierda! ¿Por qué yo?

(7) A: God wants to punish you.

B: Why me?

(8) A: Dios quiere castigarte.

B: ¿Por qué a mí?

이런 차이점 때문에 학부과정의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을 품게 된다.¹⁾

- ① Me too / Why me?등과 같은 표현에 상응하는 스페인어 표현에서 대명사가 두 가지 형태(yo, a mí)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② 어느 경우에 yo를 사용하고 어느 경우에 a mí를 사용해야 하는가?
- ③ 영어 me와 스페인어 me는 외형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둘 다 목적어 기능)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Me too / Why me?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Me también / ¿Por qué me?가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학습하기 이전부터 영어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고 또한 대학에 와서도 스페인어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영어를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모국어인 한국어가 미

1)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학습자들은 지난 몇 년간 필자의 문법 및 작문 수업을 수강한 1,2학년 학생들이다. 따라서 언급되는 오류 사례와 오류율은 이들에 국한된 것이며 타대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오류와 오류율에 있어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치는 영향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스페인어 학습에 종종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갖게 되는 ①, ②, ③과 같은 의문점은 영어 지식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한 사례이며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영어에서 인칭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더라도 동사가 생략되면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되는데 반해 스페인어는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주격대명사가 사용되는 이유를 형태적 자립성 기준을 통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스페인어에서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생략되면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도 형태적 자립성 기준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목적격대명사 대신에 ‘a+ 전치격대명사’가 쓰이는 이유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미국에서 영어-스페인어 이중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코드전환(code switching)이 목적대명사와 동사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형태적 자립성 기준을 통해 설명한다.

II. 목적격대명사의 형태적 자립성과 관련한 차이

1. 문법적 기능과 격 형태의 불일치

인칭대명사 사용과 관련하여 영어가 보여주는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문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듯한’ 형태가 쓰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격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어민들은 목적격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비격식체 영어에서 더욱 그렇다.

- (9) A: I want to go to PSY's concert next Friday!
 B: Me too. (Stripping/Bare pronoun answer)

- (10) A: Who wants ice cream?
 B: Not me. (Stripping/Bare pronoun answer)

- (11) a. She's as old as me.
 b. She is taller than me. (Comparative construction)
- (12) A: How do you relieve your stress?
 B: Me? I mediate to relieve my stress. (Left-dislocation)
- (13) Me, intelligent? (out of the blue context) (Gapping)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동사를 포함한 완전한 형식으로 말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격대명사가 사용된다는 점이다.²⁾

- (9)' I want to go to PSY's concert too.
- (10)' I don't want ice cream.
- (11a)' She's as old as I am.
- (12)' How do I relieve my stress?
- (13a)' Are you saying that I am intelligent?

(9)-(13)은 (9)'-(13)'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9)-(13)에서 주격대명사 대신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은 문법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 틀리거나 이상한 것이지만 비격식체에서 너무 흔하게 쓰이다 보니 화자들이 이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아무튼 (9)-(13)과 (9)'-(13)'과의 비교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인칭대명사에 인접한 위치에 있던 동사가 생략되게 되면

2) 동사가 생략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격대명사의 출현이 기대되는 위치에 목적격대명사가 출현하는 예가 존재한다.
 (i) A: You can tell him.
 B: Me tell him? Not likely.
 (ii) What? Him eat carrots? Never!
 (Frazier 2007, 7)

인칭대명사는 주격이 아닌 목적격 형태로 출현한다는 것이다.³⁾ 동사 출현 유무와 인칭대명사가 취하는 격 형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한편, 목적격대명사는 계사구문(copular construction), 분열구문(cleft construction) 그리고 등위접속구문(coordinated construction)에서도 나타난다.

(14) a. A: Who is it?

B: It's {me/ him/ her/ us/ them}.

b. The best candidate is {me/ her/ him}.

(15) a. It was him who broke it.

b. Don't blame Harry. It was me who opened the letter.

(16) a. You and **me** together, we can do anything baby.

b. Jack, Bill, **me**, Harry, and Jane worked late. We asked the guard to open the door.

(14)-(16)에서 인칭대명사는 의미적으로 주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예문에서 목적격대명사보다는 주격대명사의 출현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격대명사가 쓰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된 목표가 아니지만 간략하게나마 답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3) 1인칭 단수와 달리 2인칭 단수/복수는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모두 you이지만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생략되고 인칭대명사만 홀로 남겨질 때 1인칭 주격대명사 I가 me로 바뀌는 사실을 감안할 때 2인칭 you도 형태적으로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주격이 아닌 목적격으로 봐야할 것이다.

(i) A: Have a good day.

B: You too.

2. 영어의 자동격(Default Case)/무표격(Unmarked Case)

먼저 격이론(Case theory)의 관점에서 설명해보자. 생성문법에서는 명사구에 대한 주격 할당(혹은 점검)은 시제동사(좀 더 정확히 말해 시제소(Tense))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9)-(13), (14)-(16)은 표면상 주격 할당자인 시제동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9)-(13)은 문장 내에서 동사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이 생략됨으로 인해 표면상 격 할당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고 (14), (15)는 비록 be 동사가 출현하긴 하지만 이 동사는 자신의 뒤에 출현하는 명사구에 격을 할당할 수 없는 동사로 간주되므로 역시 격 할당자가 없는 경우이다. 또한 등위접속구문인 (16)도 인칭대명사와 바로 인접한 위치에 격을 부여할 수 있는 시제동사가 없다는 점에서 역시 격 할당자가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지배결속이론(Chomsky 1981)에서 격 여과(Case filter)는 모든 명시적 명사구(overtly realized NP)가 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이들 예문에서 인칭대명사는 다른 방법을 통해 격을 얻는 도리밖에 없다. 따라서 (9)-(16)에서 인칭대명사가 주격이 아닌 목적격 형태를 취하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목적격(대격)을 자동격(default Case)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cf. Schütze 2001, Quinn 2002, Bošković 2012)임을 감안한다면 주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인칭대명사는 격 여과를 어기지 않기 위해 최후수단으로 자동격 형태를 취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 예문에서 인칭대명사가 목적격 형태를 취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번에는 영어 규범문법에 관한 대표적 저서 중의 하나인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Quirk et al. 1985)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

4) 'default'의 사전적 의미는 'a preselected option when no alternative is specified'인데 통사론에서 자동격이란 명사구가 정상적인 통사적 매커니즘을 통해 격을 부여받을 수 없을 때 부여되는 격을 의미한다. 영어의 자동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chütze(2001), Cho & Park(2004)를 참조하기 바란다.

명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To account for the general pattern of pronoun usage in informal style,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traditional case distinctions do not operate here any more than they do with genitive. Instead, there is a broad division of the finite clause into ‘SUBJECT TERRITORY’ (the preverbal subject position) and ‘OBJECT TERRITORY’ (which includes all noun-phrase positions apart from that immediately preceding the verb). **In informal English, that is, the objective pronoun is the unmarked case form, used in the absence of positive reasons for using the subjective form.**(Quirk et al. 1985, 337-8)

원문의 핵심만 추려보자면 영어에서는 주격 형태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목적격 형태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즉, 목적격대명사가 무표격 형태(unmarked case form)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영어에서 목적격이 자동격이라는 Bošković(2010), Schütze(2001), Quinn(2002) 등의 주장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말이다.

3. 형태적 자립성 기준에 입각한 설명

영어에서 주격대명사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격대명사가 흔히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스페인어 학습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은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를 잘 아는 학습자일수록 영어를 표준으로 삼고 스페인어 현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즉, (9)-(16)에서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되는 현상이 문법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 이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친숙한 학습자들 중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스페인어가 목적격대명사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9)-(16)의 영어 예문과 비슷한 스페인어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17) A: Quiero ir al concierto de PSY este viernes.
 B: {Yo / *Me} también.

(18) a. Ella es tan alta como {yo / *me}
 b. Ella es más alta que {yo / *me}

(19) A: ¿Cuál de vosotros quiere venir conmigo?

B: {Yo / *Me}

(20) A: ¿Cómo combates el estrés?

B: ¿{Yo / *Me}? Para combatir el estrés como mucho.

(21) a. A: ¿Quién es?

B: Soy {yo / *me}

b. Soy {yo / *me} quien te llamó anoche.

(22) Tú y {yo / *me} volvemos al amor.

위에서 제시된 예문들의 의미로 보아 문장 내에서 인칭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예문에서 주격대명사가 쓰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습자가 있다면 이는 자신이 지닌 영어 지식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불어에서도 위와 같은 예문에서 주격대명사를 쓰지 않고 강세형대명사(moi, toi, lui, etc.)를 사용하지만 스페인어 학습자 중에서 불어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17)-(22)에서 주격대명사가 쓰이는 이유가 궁금한 사람은 불어보다는 영어 지식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주격대명사 사용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습자가 있다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답은 가령 (17)에서 Yo también은 Yo también quiero ir al concierto de PSY este viernes와 동일한 해석을 지니므로 전자는 후자를 줄여서 도출된 말이며 따라서 전자에서 주격대명사가 쓰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학습자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하다.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우선 아래의 예부터 살펴보자.

(23) A: Who is it? (vs. (14a))

B: It's I.

(24) a. She's as old as I. (vs. (11a))

b. She is taller than I. (vs. (11b))

(23)-(24)의 문법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어에서 주격대명사가 출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제동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격대명사가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격식을 갖춘 스타일(formal style)에서는 여전히 주격 형태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⁵⁾ 이처럼 영어에서 두 가지 격 형태가 다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부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은 스페인어는 왜 영어와 달리 (17)-(22)에서 두 가지 형태가 다 허용되지 않고 오직 주격대명사의 출현만 허용되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므로 (17)-(22)에서 인칭대명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주격 형태가 쓰인다는 설명만으로는 이와 같은 의문점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 못한다. 따라서 필자는 무표격/자동격과 관련한 스페인어와 영어의 차이에 입각하여 답을 하고자 한다.

영어에서는 주격 형태를 취해야만 하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표격 형태인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된다는 Quirk et al(1985)의 설명을 감안할 때 스페인어도 무표격이 존재한다고 봐야할까?⁶⁾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것일까? 필자는 스페인어에 무표격이 존재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적어도 목적격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스페인어 예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통사적 매커니즘을 통해 주격이 부여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칭대명사는 모두 주격을 취하기 때문이다.

5) 영어에서 자동격이 출현하는 여러 환경에서 목적격대명사뿐만 아니라 주격대명사도 출현하는 자료에 입각하여 Cho & Park(2004)은 영어의 자동격은 목적격뿐만 아니라 주격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자동격의 개념은 보편문법적 특질(universal grammar)이라는 Schütze(2001)의 주장이 옳다면 스페인어도 자동격이 존재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비록 Cummerow(2009)가 유아 스페인어(child Spanish) 자료를 바탕으로 스페인어의 자동격은 주격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 주격을 스페인어의 자동격으로 단정 짓기에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3-4장에서 논의하겠지만 목적어 기능을 수행하는 인칭대명사가 문장 내에 홀로 남겨질 경우에는 주격이 아닌 'a+전치격 형태'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페인어에 자동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그렇다면 스페인어에서 목적격대명사는 왜 무표격 형태가 될 수 없는 것일까?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형태적 자립성’의 결핍에서 찾고자 한다. 편의상 목적격대명사 1인칭 단수형만 가지고 설명해보기로 하자. 영어 *me*와 스페인어 *me*는 외형적, 기능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영어 *me*는 시제동사 뒤에, 스페인어 *me*는 시제동사 앞에 출현한다는 차이점을 모르는 학습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둘은 형태적 자립성과 관련하여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9)-(16)에서 보듯이 영어의 *me*는 동사 출현 여부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립형태소인 반면에 스페인어의 *me*는 동사의 도움 없이는 출현할 수 없는 의존형태소(*bound morpheme*)다. 통사론에서 영어의 목적격대명사와 달리 스페인어의 목적격대명사를 지칭하기 위해 클리틱(*clitic*)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Alarcos Llorach(1994, 10장)도 *incrementos personales átonos del verbo*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페인어 문법서에서도 목적격대명사는 약세형(*atonic*)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의 앞이나 뒤에 붙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⁷⁾ 이는 어떤 요소의 형태적 자립성 여부는 그 요소가 강세형인지 약세형인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or carecer de acento prosódico, van siempre unidos al verbo como proclíticos o como enclíticos.(RAE 1973, 424)

Los pronombres átonos o clíticos son formas pronominales de objeto no acentuadas que aparecen unidas al verbo, bien sea delante(*proclisis*) bien sea detrás(*enclisis*). (Fernández-Soriano 1999, 1253)

7) 스페인어 교수법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대부분의 초급/중급 스페인어 교재에 제시된 설명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강사들의 설명은 목적격대명사를 다룰 때 이 요소가 차지하는 위치(시제동사 앞, 비시제동사 뒤)만을 강조하는 편인데 위치에 관한 설명과 함께 목적격대명사는 동사의 도움 없이는 절대 혼자 나타날 수 없는 요소여서 항상 동사에 붙어 다녀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칭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생략된 (17)-(20)에서 *me*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21)의 경우도 시제동사 *soy*가 출현하기는 하지만 약세대명사는 시제동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동사로 부터 형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oy* 뒤에서는 *me*가 나타날 수 없다. 한편, (22)는 겉보기에 *yo*가 시제동사 *volvemos* 바로 앞에 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yo*는 *tú*와 *yo*의 대등접속을 통해 형성된 범주의 하위 부분에 불과하므로 실제로는 동사에 인접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며 그 결과 *me*는 출현할 수 없다.

(25) [DP [DP Tú] y [DP yo]] volvemos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주격대명사를 제외한 문장의 나머지 부분(특히 동사)이 생략되면 주격대명사 대신에 목적격대명사가 출현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는 영어와 달리 스페인어는 동일한 상황에서 목적격대명사의 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영어의 목적격대명사와 달리 스페인어의 목적격대명사는 형태적 자립성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스페인어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주격대명사가 그대로 쓰인다. *Me too*에 상응하는 스페인어 표현이 *Me también*이 아닌 *Yo también*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⁸⁾

- (i) a. 정말로 영희를 만날거니? - 당연히 (그녀를) 만나야지.
- b. ¿Viste a Juan? - Sí, *(lo) vi.

III. 인칭대명사가 목적어 기능을 수행할 때의 형태 문제

2장에서 필자는 영어에서 주격대명사가 문장이나 절 내부에 홀로 남겨질

8) 한국어는 주격대명사 뿐만 아니라 목적격대명사의 탈락도 가능한 반면에 스페인어는 주격대명사의 탈락만 가능하고 목적격대명사의 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대조 역시 형태적 자립성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때 목적격으로 형태 변화를 겪는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스페인어 주격대명사는 이와 같은 형태 변화를 겪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형태적 자립성 기준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인칭대명사가 주어가 아닌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사를 비롯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생략되게 되면 목적격대명사는 역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이유도 형태적 자립성 부족 때문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살펴본 영어의 예를 보기로 하자.

- (3) A: Mary invited us to the party.
 B: Me too.

이 예문에서 Me too는 Mary invited me to the party too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e가 수행하는 역할은 목적어다. (3)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주격대명사와 달리 목적격대명사는 동사를 비롯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생략되더라도 형태적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현상 역시 영어에서 목적격대명사가 무표격 형태라는 Quirk et al(1985)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에는 (3)에 상응하는 스페인어 예를 보자.

- (4) A: María me ha invitado a la fiesta.
 B: A mí también / *Me también.

위 예문에서 A mí también은 María me ha invitado a la fiesta también의 의미이므로 a mí는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왜 영어에서는 목적격대명사 me가 그대로 쓰이는데 반해 스페인어는 목적격대명사 me가 쓰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4)와 같은 대화에서 Me también으로 답하는 오류를 종종 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는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 역시 형태적 자립성 기준을 통해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설명했듯이 영어의 목적격대명사와

스페인어의 목적격대명사의 커다란 차이점 중의 하나는 형태적 자립성 여부이다. 영어에서 목적격대명사는 이러한 자립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스페인어의 목적격대명사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목적격대명사가 문장 내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4)는 동사가 생략된 상황이므로 자립성이 없는 목적격대명사 *me*는 독자적으로 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래 예문에서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될 수 없는 이유도 (4)에서 목적격대명사의 출현이 허용될 수 없는 이유와 동일하다. 즉, 문장 내에서 인칭대명사가 수행하는 의미적 기능을 감안하면 두 번째 절에서도 목적격대명사의 출현이 예상되지만 두 번째 절에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격대명사의 출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26) *Ayer lo vi en el cine y {a ella / *la} también.*

(27) *Los piratas nos han maltratado y {a mí / *me} al que más.*
(El País, 2009.11.21)

형태적 자립성 기준에 의한 필자의 설명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좀 더 많은 예를 제시해보기로 하자.

1) 비교급 구문

- (28) a. *La quiero.*
 b. **Quiero a ella.*⁹⁾
 c. *Te quiero más que {a ella / *la}.*
 d. *Te quiero tanto como {a ella / *la}.*

9) 스페인어 목적대명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1,2학년 학습자들이 종종 범하는 또 다른 오류는 가령 *Pedro quiere a María*와 같은 문장에서 *a María*를 대명사로 바꾸어서 문장을 적어보라고 하면 *Pedro la quiere* 대신에 *Pedro quiere a ella*라고 적는 것이다. 그 원인은 *a María* 전체를 대형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a*와 *María*를 각각 별개의 요소로 간주한 다음 *María*만을 *ella*로 바꾸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오류는 학습을 거듭해감에 따라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a)와 (b)의 대조에서 보듯이 동사가 출현하고 있는 절에서 인칭대명사가 목적어 기능을 수행하면 목적격대명사(la)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c,d)에서 보듯이 우등비교급 표시자 que나 동등비교급 표시자 como 뒤에 동사가 출현하지 않으면 목적격대명사는 사용될 수 없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학습자들은 (a)와 같은 문장은 잘 틀리지 않지만 (c,d)와 같은 문장은 자주 오류를 범한다. 특히 비교급 표시자 뒤에 la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가 절대적이다.¹⁰⁾ 결국 이러한 오류도 비교급 표시자 뒤에 동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 역시 형태적 자립성 기준을 활용하여 설명한다면 쉽게 교정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대등접속 구문

모든 언어에서 화자들은 단어나 표현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복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반복 회피는 말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의 경제성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필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스페인어에 대한 직관이 없기 때문에 단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까봐 자신 있게 생략을 하지 못하는 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아래 (29)에서는 동사(vio)의 생략이 가능한 반면에 (30)에서는 불가능하다.

10) (28c,d)에 상응하는 한국어 예문들은 중의성이 있다. (28c)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나는 그녀보다 너를 더 사랑해’인데 이 문장은 문맥이 사전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의성을 지닌다. 즉, 그녀가 너를 사랑하는 정도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의미이면 ‘그녀’를 주격 ella로 번역해야 한다. 반면에 나는 너와 그녀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긴 하지만 너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이면 ‘그녀’를 a ella로 번역해야 한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 문장 내에서 ‘그녀’가 수행하는 의미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ella로 번역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오류도 (28c)의 오류만큼이나 흔하기 때문에 문장을 번역할 때 인칭대명사가 수행하는 의미적 기능(주어, 목적어)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번역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 이러한 오류는 (28c,d)의 문법적 오류와는 성격이 다른 의미적 부적절성에서 유발된 오류다.

(29) Juan vio a la enfermera y al médico.
 (← Juan vio a la enfermera y ~~vio~~ al médico)

(30) *Juan la y lo vio.
 (← Juan la ~~vio~~ y lo vio)

필자는 학생들이 (30)과 같은 유형의 실수를 범하는 것을 자주 본다. 그들에게 (30)은 틀린 문장이라고 설명해주면 그들은 한국어는 ‘나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와 같은 문장을 줄여서 ‘나는 그와 그녀를 보았다’로 말하는 것이 가능한데 스페인어는 ‘la y lo vi’로 말하는 것이 왜 안 되냐고 자주 되묻기도 한다. 이러한 의문도 형태적 자립성 기준을 통해 해소시켜줄 수 있다. 즉, 형태적 자립성 관점에서 볼 때 목적격대명사는 접사(affix)나 마찬가지로 반드시 동사와 함께 출현해야 하는데 (30)에서 동사 *vio*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앞의 *vio*를 생략해버리면 자립성이 없는 *la*만 홀로 남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¹¹⁾

3) 분열 구문

(31) a. Juan me dio el libro
 b. Fue {a mí / *me} a quien Juan dio el libro.

평서문인 (31a)와 분열구문인 (31b)에서 1인칭 대명사가 수행하는 의미적 기능은 동일하다. 즉, 둘 다 의미적으로는 동사 *dio*의 간접목적어다. 그러나 (31b)에서는 간접 목적격대명사의 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비록 동사 *fue*가 출현하지만 간접 목적격대명사는 직접 목적격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시제동사 앞에 출현해야만 하므로 *fue* 뒤에 출현하게 되면 아무런 형태적

11) 흥미로운 것은 다음의 예문처럼 반복되는 요소가 동사가 아니라 목적격대명사일 경우에는 목적격대명사를 생략함으로써 반복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i) a. Lo leyó y resumió en un santiamén. (Camacho 1999, 2663)

b. Lo compró y vendió en una sola operación. (Ordóñez 2012, 432)

(30)과 달리 위 예문들이 정문인 이유는 목적격대명사는 동사의 동반 출현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대대로 동사는 목적격대명사 없이도 독자 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Gustar 유형의 동사: 간접목적어

필자는 기초문법 과목(2009년 1학년 2학기) 수강생 58명에게 아래 (32)에서 동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나도 그래’라는 의미가 전달되도록 빈칸을 채워보라고 하였다.

- (32) Ana: Me gusta bailar.
 Pedro: _____ también.

결과는 단 5명만이 정답인 A mí también을 적었고 나머지 53명 대부분은 Me también이나 Yo también으로 잘못 적었다(정답률 8.6%). 오답을 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답을 한 이유를 물어보니 Yo también으로 답한 학생들은 ‘나도 그래’라는 의미 때문에 그리고 Me también으로 답한 학생들은 Me gusta bailar también에서 반복되는 동사를 생략하고 남은 부분이 Me también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했다고 말했다. 후자의 실수는 me가 동사의 동반 출현 없이는 사용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임을 몰라서 발생한 것이다.

5) 그것 = lo?, ello?

필자는 학습자들이 전치사 뒤에 출현하는 대형식(pro-form)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급작문 과목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Estoy seguro de que él encontrará trabajo에서 밑줄 친 부분을 대형식을 이용하여 바꿔보게 했는데 단 7명만이 ello를 사용하여 올바르게 바꾸었고 나머지 43명은 오답을 적었다(정답률 14%). 흥미로운 것은 오답 중 대다수는 lo를 사용함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lo를 가장 대표적인 대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아래의 예들도 이와 동일한 형태의 오류들이다.

- (33) a. Juan me lo dijo pero no me acuerdo de {ello / *lo}.
 b. Juan me lo dijo pero no lo recuerdo.

- (34) a. Piénsalo / *Piensa ello.
 b. No voy a pensar más en {ello / *lo}.

편의상 (33)만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후안이 나에게 그것을 말해주었으나 나는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를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 ‘기억하다’에 상응하는 동사로 *recordar*를 선택하느냐, *acordar*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답률의 차이가 크다. 전자를 택할 경우는 정답률이 높지만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정답률이 떨어진다. *acordar*를 선택했을 때의 오류 중에는 재귀사 *me*와 전치사 *de*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틀리는 것도 많지만 전치사 *de* 뒤에 *lo*를 사용함으로써 인한 오류도 많다. 이는 학습자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스페인어 단어가 사용되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것 = *lo*’라는 일대일 대응에만 의존한 번역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33a)에서 전치사 뒤에 *lo*가 출현할 수 없는 이유는 *lo*가 인접한 위치에 자신을 형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동사를 확보하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해준다면 이해가 수월하리라 생각된다.¹²⁾

6) 전치사 뒤

(35) *Ama a tu prójimo como {a ti mismo / *te}*.
(마태복음 22장 39절)

(36) a. *No quiero a nadie excepto {a ti / *te}*.
b. *Tengo todo excepto {a ti / *te}*.

위의 예에서 전치사 *como*, *excepto* 뒤에 직접 목적격대명사가 출현할 수 없는 이유도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없어서 형태적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2) 학습자 중에서 전치사 뒤에 *lo*가 사용될 수 없고 *ello*를 사용해야 한다면 아래의 예문에서 *lo*가 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i) *Quiero pedirte perdón por lo de ayer*.

이러한 질문은 직접 목적격대명사로 쓰이는 *lo*와 중성관사로 쓰이는 *lo*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위 예문의 *lo*는 중성관사이기 때문이다. 명사 반복을 피하기 위해 스페인어는 관사만으로 선행 명사를 가리킬 수 있는데(예: *el libro de Pedro y el de María*) 중성관사도 가리키는 명사의 성/수가 불분명하다는 점만 다를 뿐 남성/여성 정관사나 부정관사와 마찬가지로 대화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lo [e] de + XP*’ 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위의 예에서 *lo*는 전치사 *de*에 의해 형태적 지지를 받는 중성관사이다.

한편, 주격대명사가 como, excepto, salvo, menos 뒤에 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목적격대명사와 달리 형태적 자립성이 있어서 동사의 출현 여부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 (37) a. Quiero vivir en Seúl como tú.
 b. Todos estudian duro excepto tú.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직접/간접 목적격대명사를 제외하고 문장의 나머지 요소들이 생략되면 직접/간접 목적격대명사는 출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직접/간접 목적격대명사가 형태적 자립성이 없어서 동사의 동반 출현 없이는 독자적으로 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V. 대체를 통한 보수(Repair by substitution)

3장에서는 직접/간접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용될 수 없는 이유를 형태적 자립성 부족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학습자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목적격대명사 대신에 쓰이는 ‘a+ 전치격대명사’(혹은 사격대명사 oblique pronoun)와 관련하여 왜 이 형태가 쓰일 수밖에 없는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목적격대명사를 대신하여 ‘a+ 전치격대명사’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잘 알다시피 사람이 직접목적어로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전치사 a가 출현한다(Vi a los alumnos). 필자는 전치사 a가 목적어 앞에 사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a+ 전치격대명사’가 사용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 주장의 핵심은 직접/간접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스페인어는 최후수단(last resort)으로 제 3의 형태가 이들을

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즉, ‘대체를 통한 보수(repair by substitution)’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6)에서 같은 동사(vi)가 반복해서 쓰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절에서 동사를 생략하게 되면(la-~~vi~~) 형태적 자립성이 없는 la만 홀로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6) Ayer lo vi en el cine y {a ella / *la} también.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동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목적어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는 무엇일까? 먼저 주격형 ella를 생각해보자. 주격형 ella는 자립형태소이므로 동사의 도움 없이 독자 출현이 가능하긴 하지만 목적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된다(*Vi ella). 그렇다면 남은 후보자는 전치사 a와 대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형태적 덩어리(morphological unit)’를 이룬 형태인 a ella를 사용하는 것이다.¹³⁾ 이 형태적 덩어리는 a를 통해 목적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ella 덕분에 형태적 자립성도 갖추고 있기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¹⁴⁾ (26)에서 la 대신 a ella가 사용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체를 통한 보수’는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 예문에서 ‘a+ 전치격대명사’가 나타나는 모든 예((8), (26)-(36))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대체를 통한 보수’는 (33a), (34)와 같은 예문에서 lo대신 ello가 사용되는 이유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33a) Juan me lo dijo pero no me acuerdo de {ello / *lo}.

즉, 전치사 뒤에 ello가 사용되는 이유는 형태적 자립성도 있으면서 중성 목

13) Ouhalla(1994, 361)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la는 a ella의 축소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적격 대명사가 사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 ‘a+ 전치격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14) a mí, a tí의 경우는 mí, tí가 자립성이 없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는 a와 합쳐진 형태적 덩어리가 자립성을 갖추게 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적격대명사 lo의 기능(선행하는 사건을 가리키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이 역시 ‘대체를 통한 보수’인 셈이다. 그리고 각주 16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선행하는 절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중성 약세형 대명사 lo (ex: ¿Crees que dice la verdad? — **Lo** creo)의 강세형이 ello임을 감안한다면 약세형(me, te, lo, la, los, las)이 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신 쓰이는 a mí, a ti, a él, a ella, a ellos, a ellas도 약세형에 대응하는 강세형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즉, a mí, a ti, a él 등은 a와 전치격대명사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완전히 융합된 ‘형태적 덩어리(morphological unit)’로서 불어에서 약세형 대명사(me, te, le, etc.)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에서 쓰이는 강세형 대명사(moi, toi, lui, etc.)와 동일한 기능을 지닌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⁶⁾

한편, 지금까지 제시한 설명과 크게 다르다고는 볼 수 없으나 ‘a + 전치격대명사’의 출현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안은 아래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에서 직접목적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목적격대명사와 ‘a + 전치격대명사’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활용하는 것이다.

(38) a. **Lo vi a él.**

b. **La vi a ella.**

이 사실에 착안하여 La vi와 같은 문장의 기저에 깔려 있는 형태는 La vi a ella라고 보자. 그런데 일반적 상황에서는 중복 출현을 피하기 위해 la만 나타나고

15) RAE(www.rae.es)에서도 ello를 약세형 lo에 상응하는 강세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Forma neutra del pronombre personal tónico de tercera persona del singular. Procede del demostrativo neutro latino illud y **su correspondiente átono es lo**. [...] Entre las funciones que puede ejercer este pronombre, la más habitual es la de término de preposición.

16) 불어에서는 주격대명사(je)도 목적격대명사(me)처럼 약세형이기 때문에 강세형 대명사(moi)는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될 수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주격대명사가 사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용된다. Schütze(2001)의 주장처럼 자동격이 보편문법적 특질이라면 불어의 자동격은 강세형일 가능성이 높다.

(j) A: Je suis journaliste. - B: {Moi / *Je} aussi.

그러나 스페인어는 주격대명사 자체가 강세형이므로 ‘a + 전치격대명사’는 목적격대명사가 사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사용된다.

a ella는 겉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동사와 직접 목적격대명사가 생략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낸다고 보자. 다시 말해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동사를 생략할 때 동사만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형태적 자립성이 없어서 동사에 붙어있는 접사(affix)나 마찬가지로 인 목적격대명사도 함께 동사와 함께 지워진다고 보자. 마치 ‘나는 그녀를 보았다’에서 자립성이 없는 격조사 ‘-를’을 남기고 ‘그녀’만을 지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듯이(*나는 -를 보았다) La vi a ella와 같은 문장에서 동사 vi를 지울 때 자립성이 없는 la도 함께 지워진다고 본다면 결국 a ella만 남게 되는 것이다.

두 가지 설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교수와 학습자가 판단할 몫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목표가 언어 이론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므로 어느 것이 더 맞는지를 따지기 보다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데 있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따져서 선택하면 된다고 본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 (33)-(34)에서 남성 혹은 여성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어떤 사건(event) 및 추상적 내용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중성 목적격대명사 lo가 전치사 뒤에서 강세형 ello로 대체되는 사실을 설명하기에는 첫 번째 설명 방식이 두 번째 보다 더 나아 보인다.

(33a) Juan me lo dijo pero no me acuerdo de {ello / *lo}.

왜냐하면 첫 번째 방식에 따르면 ello는 lo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형태적 자립성 조건도 충족하고 어떤 사건이나 추상적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출현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설명 방식에 따르면 ello는 Lo dijo ello라는 기본형에서 Lo dijo를 지움으로써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스페인어에서 Lo vi a él, La vi a ella와 같은 문장은 가능하지만 Lo vi ello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스페인어에서 어떤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동사 하나를 생략하는 경우 직접/간접 목적격대명사 대신에 ‘a + 전치격대명사’가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이 형태가 직접/간접

목적격대명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직접/간접 목적격대명사가 가지
고 있지 못한 형태적 자립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V. 형태적 자립성 기준의 확대 적용 가능 사례

미국의 멕시코인 지역사회에서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지닌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아메리칸(Mexican American)들은 말을 할 때 아래 예에서 보듯이 단어
단위에서부터, 구, 절 단위에 이르기까지 스페인어를 영어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어 말하는 것을 자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코드전환(code switching)이라
부른다(Lee 2009).

- | | |
|---|----------------|
| (39) a. Estaba <i>training</i> para pelear. | (word level) |
| b. Mañana voy a <i>bring her some flowers</i> . | (phrase level) |
| c. El hombre <i>who saw the accident</i> es cubano. | (clause level) |
- (Lee 2009, 5, 13)

Lee(2009)에 따르면 코드전환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
지 통사적 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제약 중의 하나는 코드전환으로 인해
두 언어 중 어느 하나의 문법(통사 규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상황에 놓
이면 코드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한다(Equivalence Constraint, Poplack(1978;
1981)). 가령 아래 예에서 보듯이 시제동사와 목적격대명사 간의 코드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시제동사와 목적격대명사 간의 어순과
관련하여 스페인어(O-V)와 영어(V-O)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코드전
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두 언어의 통사 규칙 중 어느 하나는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40) a. *told le / *le told / *him dije / *dije him
 b. *Yo lo bought.
(Lee 2009, 16)

필자는 (40)과 같은 코드전환 불가능 예는 형태적 자립성 기준을 통해서도

설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스페인어의 목적격대명사는 형태적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와 함께 출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겉보기에는 이 두 요소가 단순히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이 하나의 형태적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두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형태적 덩어리를 형성한다는 잘 알려진 근거 세 가지만 제시해 보자면 첫째는 둘 사이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의문문을 만들 때 일반 명사구와 달리 목적격대명사는 항상 동사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생략이 적용되면 둘은 항상 같이 생략되어야지 둘 중 하나만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41) *Lo no compré.

(42) a. Juan *leyó* el libro → ¿*Leyó* Juan el libro?
 b. Juan *lo leyó* → ¿*Lo leyó* Juan?

(43) A: ¿Los viste?
 B: Sí, ~~los~~ vi. / *Sí, los vi. / *Sí, ~~los~~ vi.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형태적 덩어리를 이룬다면 이 덩어리로부터 어느 하나를 떼어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40)과 같은 코드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도 이미 형태적으로 하나가 된 덩어리에서 일부를 떼어 내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¹⁷⁾

17) 익명의 논평자는 (40)의 코드전환 불가능 사례는 Poplack(1978; 1981, 5)이 주장한 자유 형태소 제약(Free Morpheme Constraint)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i) Free Morpheme Constraint: A switch may occur at any point of the discourse at which it is possible to make a surface constituent cut and still retain a free morpheme.
 자유 형태소 제약의 핵심은 의존 형태소는 코드 전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형태적 자립성 기준에 의거한 분석과 거의 동일하다. 이 사실은 필자의 설명이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아무튼 Poplack의 자유 형태소 제약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논평자 분께 감사드린다.

VI. 결론

Me too와 Yo también의 차이에서 보듯이 동사를 비롯한 문장의 나머지 요소가 생략될 때, 즉 Stripping 현상이 일어날 때 인칭대명사가 취하게 되는 형태와 관련하여 영어와 스페인어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영어에서는 인칭대명사가 문장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이나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목적격대명사가 쓰이지만 스페인어에서는 인칭대명사가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이나에 따라 취하는 형태도 각각 다르다. 즉, 주어로 기능하면 주격대명사를, 목적어로 기능하면 ‘a+ 전치격대명사’를 사용한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가 인칭대명사의 ‘형태적 자립성’ 여부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 형태적 자립성 기준을 통해 두 언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영어에서 Stripping이 발생하면 인칭대명사가 목적격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목적격이 무표격(unmarked Case) 혹은 자동격(default Case)이어서 주격을 사용해야만 하는 명백한 상황이 주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무표격인 목적격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적격이 무표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형태적 자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깊다. 반면에 스페인어에서는 동사를 비롯한 문장의 나머지 요소가 생략되더라도 주격대명사가 목적격대명사로 전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목적격이 무표격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태적 자립성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홀로 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Stripping이 발생하더라도 형태적 자립성을 갖춘 주격대명사가 그대로 쓰일 수밖에 없다.

둘째, 스페인어에서 인칭대명사가 목적어 기능을 수행할 때 동사를 비롯한 문장의 나머지 요소들이 생략되더라도 목적격대명사는 여전히 쓰일 수 없고 대신 ‘a+ 전치격대명사’가 쓰이는데 그 이유는 ‘a+ 전치격대명사’ 형태가 목적격대명사의 문법적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목적격대명사에게는 없는 형태적 자립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Alarcos Llorach, E.(1994),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 Alexander, L.G.(1988), *Longman English Grammar*, NY: Longman.
- Bošković, Z.(2012), “On NPs and Clauses,”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http://web2.uconn.edu/boskovic/papers/npclauses.pdf>.
- Camacho, J.(1999), “La coordinación,”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2635-2694.
- Cho, S.E. & M.K. Park(2004), “Constraints on Default Case Licensing in English,” *Studies in Modern Grammar*, 36, pp. 45-74.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ummerow, C.(2009), “Developing Spanish Child Language: The Syntax of Pronominal Case,” *Senior Honor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 Fernández Soriano, O.(1999), “El pronombre personal. Formas y distribuciones. Pronombres átonos y tónico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1211-1273.
- Frazier, M.(2007), “Default Case in OT Syntax,” m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http://web2.uconn.edu/boskovic/papers/npclauses.pdf>.
- Kato, M.(1999), “Strong and weak pronominal; in the null subject parameter,” *Probus*, Vol. 11, No. 1, pp. 1-37.
- Kim, M.B.(2007), “Atonic Pronouns and Topic,” *언어과학 연구*, 40, pp. 183-199.
- Lee, M.K.(2009), “Code Switching in the Mexican American Community,” *Revista Iberoamericana*, Vol. 20, No. 2, pp. 145-168.
- Ordóñez, F.(2012), “Clitics in Spanish,” *The Handbook of Hispanic Linguistics*, MA: Wiley Blackwell.
- Ouhalla, J.(1994), *Transformational Grammar*, NY: Arnold.
- Quirk et al.(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Y: Longman.
- Poplack, S.(1978/1981), “Syntactic Structure and Social Function of Code-Switching,” R.P Duran(ed.). *Latino Discourse and Communicative Behavior*,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pp. 169-184.
- Poplack, S.(1980), “Sometimes I’ll start a sentence in Spanish y termino en español,” *Linguistics*, 18, pp. 581-618.
- Quinn, H.(2002), “The Distribution of Pronoun Case Forms in English,” *Doctoral*

-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nterbury.
- Real Academia Española(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 Schütze, C.(2001), “On the nature of default case,” *Syntax*, 4, pp. 205-238.
- Sobin, N.(1997), “Agreement, Default Rules, and Grammatical Viruses,” *Linguistic Inquiry*, 28, pp. 318-343.
- Vercollier et al.(2004), *Difficultés expliquées du français*, CLE: Paris.

심 상 완

단국대학교
pablo@dankook.ac.kr

논문투고일: 2013년 2월 18일
심사완료일: 2013년 4월 12일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15일

Me too vs. Yo también

Sangwan Shim

Dankook University

Shim, Sangwan(2013), Me too vs. Yo también.

Abstract English and Spanish show a big difference regarding the form of personal pronouns when the verb is ellipited(Bare DP constructions). The most well-known example of the difference is 'Me too' vs. 'Yo también'. Many Korean students of Spanish often wonder why Spanish, unlike English, disallows '*Me también' as the corresponding expression to 'Me too'. Thu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give a detailed account of this contrast from a pedagogical point of view. Firstly, I argue that the contrast has much to do with morphological autonomy of the objective pronoun: the English objective pronoun is an independent morpheme, whereas the Spanish counterpart is a bound morpheme, which means that it cannot be used in the absence of the verb. For this reason, the Spanish corresponding expression to 'Me too' is not '*Me también' but 'Yo también'. Secondly, I try to give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y the 'a + oblique pronoun' should be used when the objective pronoun remains alone within the sentence. I claim that this is also due to lack of morphological independence of the Spanish objective pronoun and that the use of 'a + oblique pronoun' is a kind of last resort to solve the problem, that is, an instance of 'repair by substitution': this form not only plays the same functional roles as the objective pronoun, but also has morphological independence that the objective pronoun lacks. This is why 'a + oblique pronoun' is required to replace the objective pronoun when the verb undergoes ellipsis or gapping.years later.

Key words Objective pronoun, Bare pronoun answers, Default case form, Morphological autonomy, Repair by substitution